

리더십과 프로젝트



조이남 삼성SDS(주)/고문

유대의 종교지도자들과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요? 인민재판식 질문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용서해 줄 경우에는 그 당시의 법률인 모세의 율법에 합당치 못한 일이 되고 법률에 따르면 그 자리에서 돌로 때려 죽여야만 하는 숨막힌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머리 숙여 생각한 다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을 둘러싸고 있던 종교 지도자와 군중들은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예수께서는 군중이 모두 떠나간 뒤에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너를 용서해주마. 이제부터는 너 자신이 깨끗하게 살거라” 얼마나 명석한 판정입니까. 이것이 곧 군중을 다스리는 리더십이었습니다.

본인이 근무했던 직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금융전산망 개발에 사용한 Base-24라는 금융전용 패키지があります. 금융전산망을 공동이용하기 위하여 87

약력 : • 69~70 한국유니백(주) • 70~80 금융기관 전자계산본부 • 80~86 은행지료관리소 • 86~2001 금융결제원 • 현재 삼성SDS(주) 고문

년부터 금융망 중계센터에서 사용했던 패키지입니다. Base-24 패키지에는 여러 은행 센터로부터 송신되는 메시지를 대화형식(Interactive)과 보관 후 전송방식(Store and forward)으로 메시지를 중계하여, 고객이 어느 은행의 현금자동인출기라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송금을 의뢰하면 모든 은행지점에 있는 고객의 통장에 입금이 되도록 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능이 다양한 패키지의 일종입니다. 금융공동망 개발 초기에는 직원들의 기술 수준이 자체 개발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이었고, 이러한 패키지를 이용하여 우리 수준에 맞도록 조정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초기 구입비와 매년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었습니다. 개발 운영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직원들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만 향상되면 이러한 패키지를 개발해서 비용을 절감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패키지를 사용한 후 몇 년이 지나 직원들의 기술습득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판단되어 Base-24의 송금기능 부분만이라도 먼저 개발하여 외화를 절약하여야겠다고 생각하고, 5명을 한 팀으로 개발에 착수했고 10개월 후에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습니다. 프로그램 테스트는 물론 이행테스트도 열심히 하여 패키지완성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특정 토요일에 이행 작업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시스템은 잘 돌아가 주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도 업무처리가 원만하게 처리되었으나 화요일 오후 3시30분경 시스템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각 은행으로부터 센터에 전달된 데이터 12000여건이 적체가 생겼고 송신 업

무가 중단되어 은행에도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고객들로부터 업무마비로 발생하는 민사상의 배상책임까지 문제되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KBS의 9시 뉴스에서 금융망 운영 중단으로 “민원발생”이라는 기사까지 발표되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비상연락을 받은 본인이 회사의 컴퓨터실에 들어간 순간 직원들이 당황하고 있는 분위기를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감독기관으로부터 연속 전화확인과 언제 복구가 완료되느냐는 질문이 폭주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일 중요한 사항은 먼저 직원이 침착성을 가지고 복구방법을 마련한 후 한 스텝씩 이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컴퓨터실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우선 외부로부터 오는 민원성 전화는 모두 나에게 집중시키라고 부탁하고 개발팀장에게는 미 처리분 데이터 이행을 위한 시나리오를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전송된 메시지를 배치로 분류 집계하여 각 은행 컴퓨터실에 팩스 또는 자기테이프에 담아 전달하고 각 은행에서 배치로 입금처리를 하면 작업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시나리오대로 은행별 데이터를 분류 집계한 다음 자기테이프에 담아 각 은행전산센터에 운송하고 또 일부 데이터 량이 적은 은행에게는 팩스로 자료를 전송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은행전산실에서도 비상상태가 되어 응급처리를 하게 되었지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은행의 담당부서장들에게는 죄송스런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날 밤 비상대책으로 자료처리가 끝나고 다음날 아침 새로 개발된 프로그램은 철수하였고 종전 운영하던 프로그램으로 원상회복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신규 프로그램은 에러를 고쳐 이행을 완료하고 개

발톱 직원들의 명예를 회복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후 책임문제와 리더쉽을 더욱 소중히 생각하게 되었고, 프로젝트의 개발이행 시에는 프로그래머들은 항상 “아무도 죄 없는 자”라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